현대불교 31 창간 31주년 1994-2025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제 1550 호 B1

AI & 미래불교



‘AI’가 그려낼 미래불교 핑크빛일까 회색빛일까

2025년 10월 현재, 인공지능(AI)은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조직 구조와 업무 문화를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학교에서는 교육 콘텐츠 제작과 과제 해결의 파트너로, 미디어 제작자들에게는 창작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써 활용 중이다.

불교계도 ‘AI 전법’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 중이다. 조계종 등은 지난해부터 ‘열암곡 마애부처님 AI’, ‘고민상담소 스님 AI’ 등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등에서 선보였고, 본지도 올해 4월 AI 기술을 활용한 불교상담봇 ‘해심이’(解心)를 공식 오픈했다. 이 같은 불교 신행상담봇은 전세계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AI가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에 따른 번뇌도 빠르게 진화한다. 대표적인 것이 생성형 AI를 통한 가짜뉴스·미디어 콘텐츠들이다. 불교계도 이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유튜브와 SNS에는 비불교적 콘텐츠들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그렇기에 AI의 바른 활용을 위한 윤리 선언과 가이드라인 구축·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I는 인간을 비추는 ‘인과의 거울’이다. AI가 학습하는 대부분의 정보와 알고리즘은 인간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결국 ‘AI’라는 첨단기술이 그려낼 미래의 색깔이 어떤 색일지는 인간에게 달렸다.

글 · 삽화 AI 디자인=신중일 기자

B2 불교 AI 활용 어디까지 왔나
B3 비불교 AI 콘텐츠 범람, 대책은
B5 AI 윤리, 불교가 나서야
B6 · 7 AI 전문가 좌담회
B10 · 11 AI 그림 공모전 수상작